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의 대응

科學文學研究院 理事 및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 顧問

金 宗 會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도서관과 컴퓨터의 멀티미디어를 생각해 보면, 도서관과 컴퓨터가 만난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벌써 도서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이나 컴퓨터가 취급하는 것이 같은 정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컴퓨터는 도서관내에서 그 지위를 서서히 높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도서관에서는 수서, 정리, 대출 등 기본적인 업무는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더욱이 근래에는 도서관에 멀티미디어라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실재 근래에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생산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컴퓨터는 우리들의 생활에 깊숙히 침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먼 존재였던 멀티미디어가 이제는 단숨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멀티미디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도서관의 전문직들은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는 콘텐츠(Content)를 만든 사람의 의사를 이용자에게 전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관에는 학술정보인 자료를 이용자에게 적절히 소개할 역할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자관의 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산재되어 있는 학술정보를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란 다시 말하면 정보와 이용자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문직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은 학술정보의 전문가로서 학술정보 그 자체와 그것을 에워싼 환경에 대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전문직의 일은 이용자가 내용적으로 질이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한 학술정보에 관한 지원(Support)과 이용자가 적절히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자 지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용자가 도서관을 쉽게 활용하게 되며, 그리고 훌륭한 연구를 발표해 준다면 그것은 도서관의 전문직으로서 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질이 높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은 학술정보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입수방법 그리고 관리방법이나 처리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또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용자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하므로써 이용자 자신이 도서관에 대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환기시켜 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도서관의 체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정보를 맞이함에 있어서 도서관은 서비스 체제를 이에 어울리게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명: 「マルチメディア時代の図書館の對應」(Situation of Library Services at Multi-Media Time).

저자: 見玉關(Tadashi KODAMA)

게재지: 醫學圖書館 Vol. 43(1), p112-115, June 1996.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대학교와 연구소의 도서관(실)을 말함.

니다. 이 멀티미디어의 환경에 대응할 체제를 갖추려면 도서관 정보미디어과(가칭)라는 부서를 도서관내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그 명칭에는 구애받지 말고, 학술정보미디어과이전 또는 멀티미디어과이전 어떤 명칭이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서에서는 학술정보와 컴퓨터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성과를 이용자에게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을 직무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과 컴퓨터는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상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대응자세는 아직 소극적이고 안이한 것 같으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치 부업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해소하고, 업무로서 컴퓨터에 대처하므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폭을 넓힐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정보에 관한 연구란 세분화되고 다종다양해진 학술정보에 대해 도서관의 직원이 어디까지 알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학문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학문에서는 어떤 학술정보가 생산되었는지, 그것은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학술정보를 작성하였는지 또 우리들은 그 학술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갱신되는지 하는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정보는 어떻게 보존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권해야 할 것입니다.

종래의 도서관이나 학술자는 책자체의(冊字體)의 형태였으므로 정보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복사 정도 밖에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입수된 정보는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Customize가 가능합니다.

금후 학술정보도 멀티미디어화 된 것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이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이용자에게 숙지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컴퓨터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게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특히 PC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학술정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직원은 PC를 중심으로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도 지식을 깊이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PC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학술정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또 자문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 이용자는 전부 PC에 밝지만은 않으므로 이용자의 학술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PC에 관한 기초교육을 도서관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PC를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이용자의 PC의 활용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전문적인 부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내용의 일부는 도서관에서는 참고사서(Reference Librarian)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도서관에 따라서는 몇개 부서의 업무로서 분배되어 실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통괄하여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도서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가 흐르면 머지않아 도서관은 필요없게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발전 상태로 미루어보면 머지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학술정보의 형태가 책자체에서 전자정보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한 오늘날 이용자는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이용자는 자기들의 도서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도서관에 정보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 시대에 맞는 도서관의 기능을 갖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